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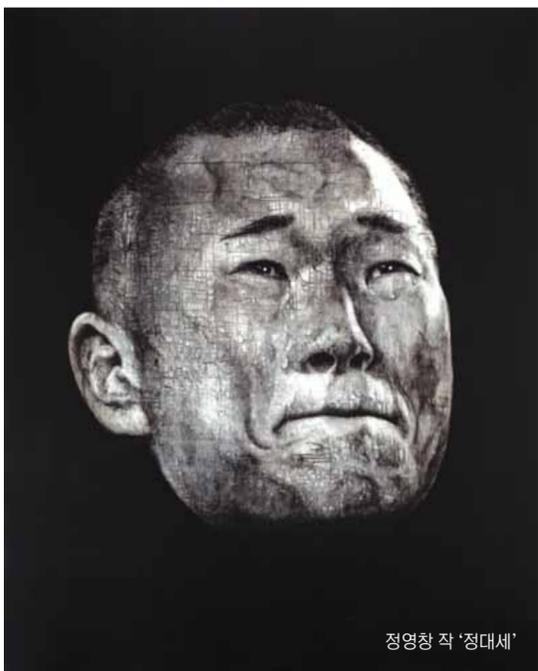
광주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 후' 11월 9일까지 시립미술관

이슬처럼 사라지기엔 너무 가까운 전시



케테 콜비츠 작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여인'

동서양 국가폭력 속 치유·희망의 메시지 '세월오월' 사태로 관람 열기 식어 아쉬워



정명창 작 '정대세'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중 전시인 '달콤한 이슬-1980 그 후'는 '광주정신'을 내세운 전시다.

광주가 지닌 국가폭력이라는 상처를 세계 속에 나누면서 치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자며 기획됐다. 특히 동서양의 국가폭력을 함께 다뤄 세계사의 아픔을 달콤한 이슬로 승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전시 개막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이 논란이 되면서 전시보다는 '세월오월' 사태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운범모 책임큐레이터도 개막 직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 전시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세월오월' 사태에 전시가 묻혀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8월8일 개막한 특별전 폐막(11월9일)을 앞두고 전시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을 다시 찾았다. 특별전에는 아직도 '세월오월'의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

미술관 1층 로비에 있는 중국 중앙미술학원 출신 장 후안 작가의 '넘어지는 공자'를 지나 1전시실을 들어서자 이이남 작가의 작품 '못다 핀 꽃을 위하여'가 눈과 귀를 붙잡았다.

이 작품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린 작품들의 이미지와 그들의 육성을 미디어 아트로 구성한 작품이다.

특히 "배타고, 기차 타고 갔는데 군인들이 많더라" "어린 나이에 공장에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가 군인들 상대하는 공장이다" 등 영상 너머 들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육성이 가슴속에 사무치는 작품이다.

1전시실에는 이 작품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끌려감' '빼앗긴 순장' '끌려가는 배 안' 등 작품이 함께 전시돼 있다.

장 후안의 대형 목판 작품과 노동 현장에서 '현장'을 담은 이윤엽 작가의 아카이브 작품이 이어진다. 세월오월 사태 때 펼쳐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던 이 작품 한쪽에 쓰인 "본노가 죽다 2014 GWANGJU BIENNALE"라는 문구와 옆에 전시된 홍성민 작가의 '아시아의 숲-그날'에 달인 천에 적힌 "결개그림 '세월오월'에 대한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의 탄압에 강력히 항의한다"라는 문구가 전시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겨줬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인물들의 담은 이세현 작가의 'Between

Red' 등 1전시실에는 무게감을 안겨주는 대작들이 주로 전시돼 있다. 이이남 작가의 '취조받는 그리스도' 'Re born'도 인상적인 작품이다.

독일의 유명 저항미술가였던 케테 콜비츠의 판화 작품과 '아Q정전'을 쓴 루쉰의 항일 목판화 운동 작품은 3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어둠 속 자신이 홀비한 공간에서 불빛을 비추며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 죽은 아이를 부여잡고 통곡하는 부모, 고개 숙인 동료의 모습, 한 아이를 감싸고 있는 어머니들의 무리, 치맛자락에 자식을 숨긴 어머니 등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된 케테 콜비츠의 작품은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전해줬다.

케테 콜비츠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여인'과 조각 '모자상'은 가슴을 멍먹하게 하는 작품이다. 작품 너머 5·18 현장에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을 80년 오월 어머니들의 모습이 오버랩됐다. 작가가 이기 이전에 자녀들을 전쟁에서 잃었던 어머니로서의 케테 콜비츠의 쓸쓸함과 외로움은 그의 자화상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다.

여명, 전쟁의 상흔, 탄압받는 중국인들의 모습,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의 모습 등 루쉰의 작품에서는 우리와 같은 상처를 가진 당시 중국의 모습이 비쳐도 했다. 특히 땅을 기며 수레를 끄는 사 람의 모습은 케테 콜비츠와 루쉰의 작품에서 함께 그려졌다.

6전시실에서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영창 작가의 작품 '정대세' '서승' '문규현' 등이 주는 울림이 컸다. 허탈한 듯한 표정의 문규현 신부의 얼굴, 입을 굳게 다문 서승 교수의 표정에서 그들의 삶이 읽혔다.

작품 '정대세'를 마주하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떠올랐다. 당시 정대세는 브라질과의 1차전 경기에 앞서 국가 연주에 진행되는 도중 눈물을 흘렸다. 정대세는 당시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꿈꿔왔던 월드컵에서 최강 브라질과 맞붙는다는 사실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고 설명했다. 그의 눈물을 마주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그 이면의 것들이 읽혔기 때문이다.

또 전시장을 감싸는 자넷 카디프의 '40성부 모테트'는 40개의 스피커가 들려주는 하모니 속에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스피커 한 기운에서 귀와 가슴을 열고 듣는 음악과 노래하는 이들의 자연스런 대화가 인상적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박수영 스물두번째 피아노 독주회

내일 금호아트홀

박수영 피아노독주회가 30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다양한 작곡가의 변주곡이다. 하이든의 '바다조 변주곡', 브람스의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카푸스틴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중 바순 솔로를 주제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변주 작품 41'이다.

피아날레 곡은 리스트의 '소나타 b단조'. 단약장이지만 5개의 주제가 계속 변형되면서 30여분 씬 없이 연주해야 하는 곡이다.

박씨는 전남대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프랑스 파리 콘서바토리 인터내셔널과 예콜 노발 슈페리



일 과정에서 공부했다.

현재 호신대에 출강중이며 지금까지 스물 한차례 독주회를 여는 등 그 어느 피아니스트보다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C.N피아노 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문의 010-4508-99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순수' 콘서트 개최

31일 우월순 선교사 사택

광주 남구 양림동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순수'가 오는 31일 오후 7시 우월순 선교사 사택 뜰에서 '양림의 소리를 듣다 시즌2' 마지막 공연 '10월의 크리스마스'를 연다.

광주문화재단 '2014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원사업'의 하나인 이번 공연은 1904년 12월 24일 양림리 교회에서 열린 광주 최초의 축제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공연은 서울예술대, 동덕여대, 동아방송대, 경희대, 호남신학대 등 전국 최고의 실용음악과 밴드 5팀이 참여해 광주 젊은이들과 교감하는 젊음의 콘서트로 10월의 마지막 밤, 양림동 역사문화공간에서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한다.



서울예술대학 'ON OFF', 동아방송대 '최성환 트리오', 동덕여대 '토버', 호남신학대 'Five Birds'가 무대를 꾸미고 스페셜 게스트로 광주의 대표적인 인디밴드 '루버스타'이 참여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2-651-09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해의 파워 미술인 100인' 광주비엔날레 출신 대거 포함

영 아트리뷰 선정

영국의 유명 매체인 아트리뷰(Art Review)가 최근 선정한 올해의 파워 미술인 100인에 광주비엔날레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다.

아트리뷰에 따르면 2012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이었던 김선정씨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아트리뷰가 선정한 '2014 파워 미술인 100인' 중 89위(지나해 94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올해 초 아시아문화정보원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다.

1위는 영국 런던 세계 최대의 현대미술관인 테이트 모던 관장인 니콜라스 세로타로, 지난 9월4일 열린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식과 포럼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바

있다. 이번 2014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인 피에르 위그(38), 로즈마리 트로젤(63), 올라푸르 엘리아손(88), 아르캄 자타리(94) 등 4명도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비엔날레 전직 예술감독 및 큐레이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2008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이었던 오쿠이 엔위저(2015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와 2010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았던 마시미리아노 지오니는 각각 24위와 25위로 나란히 선정됐다.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이었던 아이 웨이웨이는 15위, 광주비엔날레에 큐레이터로 참여했던 찰스 에서는 87위를 기록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희망의 정치 원하세요? 후원하세요!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기부
 - 후원회 후원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모두 가능
 - 계좌이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휴대폰 결제 가능
- 스마트청구서(스마트폰 정치후원시스템)에서 기부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

정치후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기부시 초과액의 15%~25%를 세액공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치후원금 을 쳐보세요

062-382-760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061-288-811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명여자대학교
MBC OK!광주
김소영